

의료 소모품 부족 우려... 주사기 사재기 막는다

정부, 제조·판매사업자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 고시 현장 혼란 막고 공급·수요 안정으로 유통질서 확립 긴급 점검·생산기업 지원·혈액투석 전문의원 공급

중동사태 여파로 주사기·수액팩 등 필수 의료 소모품의 수급 불안정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한시적 고시를 통해 원자재 수급 차질과 유통 단계의 사재기 조짐이 겹치며 커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

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에서 쓰이는 의료 소모품은 대부분 나프타를 중합해 만든 합성수지 제품으로, 일회용 주사기·수액팩·의료용 튜브뿐 아니라 비닐장갑·약 포장지도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의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 왜곡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매점 매석 행위 등을 금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날 오전 12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시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전년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공급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이밖에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 후 1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위해 식약처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이는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의심 사례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데이터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매일 공개해 수급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고 했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전국 지자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할 계획이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의료제품 생산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운

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하타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다"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기차 충전기 낮 요금 최대 15% 할인 기후부·한전, 18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시행

오는 18일부터 전국 10만7000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할인'이 18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3~5월과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할인은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기와 기후부·한전 운영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기에 18일부터 적용된다.

전력 요금 할인에 따라 자가 주택용 충전기 충전 요금은 1kWh에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과 42.7원 할인된다.

충전 요금 기준 할인율은 12~15% 정도다. 전력 요금은 전체 요금에서 35% 정도를 차지한다.

기후부·한전 급속 충전기에서 할인 받으려면 당사는 기후부·한전 충전 회원이거나 비회원으로 충전기를 이



용해야 한다.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으로서 로밍 서비스로 기후부·한전 충전기를 이용할 때와 반대로 기후부·한전 회원카드를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도 할인이 적용되도록 시스템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해당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1.3%인 514곳이 10월 1일까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했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유예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나누면 식료품이 60곳(전체 식료품 사업장 1.9%), 1차 급속이 55곳(2.3%), 비금속 광물 49곳(1.9%)이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롯데백화점 광주점, '보물섬'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가성비 그릇 매장으로 유명한 '보물섬' 팝업 행사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 마련한 가성비 그릇 매장 '보물섬'의 팝업 관계자들이 다양한 테이블웨어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소부장 지원 현장설명회 28일 광주서 개최

광기술원... 기술애로 해소부터 사업화까지 전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설명회가 호남권 거점인 광주에서 오는 28일 열린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애로 해소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 개최하며, 호남권 설명

회는 오는 28일 광주에 위치한 한국광기술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38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참여해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신뢰성 및 양산성 검증 등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과 소부장 특화단지별 기업지원

현황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1대1 상담 데스크가 운영돼 기업별 애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진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기업에는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연계해 현장 방문 지원까지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기술 지원이 병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스타벅스에 담긴 우디·버즈 '토이 스토리' 협업 상품 선배

스타벅스 코리아가 고객들의 향수를 자극할 상품을 선배 눈길을 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5일부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손잡고 디즈니·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토이 스토리' 테마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스타벅스가 장난감 친구들의 우정과 모험을 다룬 '토이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 오랜 시간 함께한 '버디'(단골) 고객들이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추억을 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오는 6월 '토이 스토리5' 개봉에 앞서 한국 스타벅스에서만 진행되는 프로모션으로, 'PLAY YOUR DAY'라는 슬로건 아래 토이 스토리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협업 음료인 '우디 카우보이 쿠키 플드 브루'는 깔끔한 풍미의 플드 브루 위에 슈푸를 올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초콜릿과 너티 풍미가 돋보이는 카우보이 쿠키 스타일의 토핑을 얹어 토이 스토리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인 '우디' 테마의 음료를 완성했다.

텀블러와 머그에는 토이 스토리 쉘 스티커가 랜덤으로 들어있어 키덜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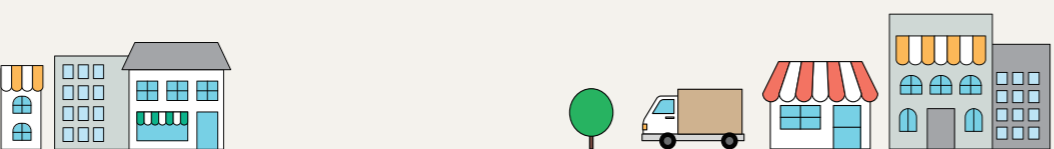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주 남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백운대성시장에 백운동을 대표하는 가치 캐릭터 조형물 만나면이 설치된 모습



남구 백운대성시장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



주최



후원

